

광주·전남 개성공단 진출 1호 기업의 고민

‘공장 멈출까’ 불안불안 “기업활동은 보장돼야”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전선가공품 생산업체인 부천공업(대표 조복희), 대표 조씨를 포함, 이 회사 직원들은 요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에 싸여 있다.

부천공업은 광주·전남지역 기업 중 유일하게 북한 개성공단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 1호 회사인 셈이다.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부천공업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은 더욱 단단히 조이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회장 김기문 로만슨 대표)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개성으로 들어가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핵 실험의 와중에도 기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공업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생산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통관 문제도 이상 없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입가공생산을 하던 부천공업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생산공장을 준공, 같은 해 6월 시험생산을 거쳐 7월부터 생산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 시작했다. 남쪽 직원 4명, 북쪽 직원 500여명이 근무 중이며 부천

담양 부천공업 작년 개성에 공장설립 조대표 ‘핵위기’속 현지 생산활동 지속 진출 검토 광주지역 10여개업체 ‘멈칫’

공업은 지난해 1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계속 확대될 경우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개성공단 사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핵실험 이후의 남북 및 국제 정치적 상황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민간투자 기업활동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재 개성공단은 39개 업체가 생산활동 및 공장

건설 중이며 2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은 중국·동남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 핵실험 파장은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을 고려하던 중소기업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H사 등 광주·전남지역 10여개 업체는 상황을 예의 주시중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경협이 경색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진출계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내 제조물품의 원산지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기협중앙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분위기가 계속 악화되면 진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대기자 jitee@kwangju.co.kr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무기 연기

북한 핵실험 여파로 이달말 예정됐던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이 무기한 연기됐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달 말쯤 개성공단 본단지의 분양에 나설 계획

이었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신청 희망업체들의 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분양일정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협뉴스

“北 핵실험, 美 대북정책 실패 입증”

김대중 前대통령 전남대 특강 “경제이권 엄청난데 經協 왜 손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햇볕정책은 북미관계가 장애가 되어서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 지금까지 결과로 볼 때 남북간에는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해 “북 핵실험을 놓고 햇볕정책을 거론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직후 가진 특별강연을 통해 “햇볕정책이 실패했다. 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는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닌다”며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 개발했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남북간에 분명히 성공했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북미관계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적으로 흔들면 바뀔 정책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과 주고 받기로 경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북한에 엄청난 발을 내디

관련기사 3·4·5·6·11면



북한의 핵실험이 전 세계 조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햇볕정책의 창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디고 있고 거대한 경제이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손을 떼고 나와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망에 대해서 “경제제재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제재에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단호하게 반대

하기 때문에 군사제재로 갈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로 몰아넣고 있는 행위”라며 “북은 즉각 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번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美 못살게 굴면 선전포고 간주”

“美, 北 공격의도 없다”
라이스 국무장관

핵실험 후 첫 北외무성 성명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이미 탈퇴하였고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는 우리가 핵실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발표하

자마자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해 압력적인 결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우리가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라며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를 실현하려는 진중한 염원으로 부터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인내성있는 성의와 아람에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대대해 나섰다”면서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라며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0일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이미 밝혔으며 지난해 9월 북핵 공동성명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따라서 그들은 그런 보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이라크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며 북한과 이라크는 상황이 다름을 강조했다. /연협뉴스

동양지축은행 5.6년 역사인 은행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인터넷은행
남부대학교
http://www.nmsu.ac.kr
세미나당사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cnu.ac.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김동원